

# 이 봄 '즐거시' 를 외치며 봄을 즐기자

작가 에세이

김면수  
칼럼리스트  
시인



몇 일전 오랜만에 다양한 분야의 지인들과 막걸리 전문 식당에 동행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교수님의 진담 반 농담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자신이 건강하게 80년을 산다면, 26년은 잠자고, 21년은 일하고, 9년은 먹고마시는 시간이고, 행복함을 느끼며 미소 짓는 시간은 겨우 20일 정도라는 것. 고민하는 시간 5년, 기다리는 시간 3년을 소비할 수 있다는 삶의 시간 계산법을 이야기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자신이 팔십 평생 동안 산다고 가정했을 때 겨우 20일 정도 밖에 행복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삶이 너무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화내는 시간을 줄이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시간에서 대화를 나누어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건배사도 '즐거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시간)였다.

중국의 고전에 소개되는 우화에 황하의 신하백이 끝없이 펼쳐진 자신의 강에 흡족하는 이야기가 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모두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하백. 어느 날 그는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하백은 망망하 펼쳐진 바다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그동안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백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약(若)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의 좁은 소견을 뉘우치면서 조연을 들켰다는 것이었다. 이에 약은 하백에게 세상에는 새로운 변신을 방해하는 세가지 그물이 있다고 조언했다.

첫째는 공간의 그물인데,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시간의 그물이라고 했다. 여름 한 철만 살아가는 곤충은 겨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의 진단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의 그물

“화내는 시간을 줄이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시간에서 대화를 나누어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지인이 말했다. 그의 건배사도 '즐거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시간)였다. ...도처춘풍(到處春風·모든 곳에 봄바람이 분다)의 계절이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봄날, 모두가 즐거움과 긍정의 시간에서 변화의 물결을 다짐하는 '즐거시'라는 건배사를 외치며 이 봄을 즐길 일이다.

이라 했다.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 생각하는 지식인에게 진정된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지식의 그물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는 미래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세가지 조언을 제시했다. 공간을 파괴하고, 시간의 속도를 재 조절해 지식을 재신입 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공간과 시간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장자가 꿈꾸는 난세에 영혼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변화되는 사회를 바라보면 서도 자신만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변화의 기회는 멈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날 대포집에서 전직 교수가 했던 건배사를 생각해 봤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얽힌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 현재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었고, 미래는 상상의 결정에 따라 바뀌고, 현재는 지금 생각과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변화를 바라지 않고 현재만을 고집한다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 어찌 보면 단순한 이 진리야말로 유구하게 이어져 온 인류 역사가 주는 조언일 것이다. 그렇다고 변화의 물결에 무조건 휩쓸려서도 안 될 것이다. 중국의 고전 우화에 나오는 하백처럼 자신의 부끄러움도 뉘우칠 수 있어야 하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조언했던 것처럼 고정관념과 공간의 시간에 갇혀서도 안 될 것이다.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로 변화되는 것 같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자.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생산한 단체들이 가끔은 거슬린다. 그들의 좁은 소견이 전부인양 그들만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했다. 권세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또한 자신의 변신을 방해하는 그물일 뿐이다. 도처춘풍(到處春風·모든 곳에 봄바람이 분다)의 계절이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봄날, 모두가 즐거움과 긍정의 시간에서 변화의 물결을 다짐하는 '즐거시'라는 건배사를 외치며 이 봄을 즐길 일이다.



기고 정길수 전남도의원

# 현수막, 불편한 진실과 과제

바야흐로 4월, 완연한 봄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계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갖가지 구호를 내건 후보들의 현수막이 각양각색으로 장관을 이뤘다. 총선이 끝난 지금도 현수막 물결은 여전히 보인다. 선거 현수막을 댄 자리에는 당선과 승복 인사 현수막이 달렸다. 그런데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접목되고 있다. ESG란 친환경, 저탄소 활동, 사회 공헌,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핵심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뜻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홍보 목적이라는 수명을 다한 현수막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현수막은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아 각 후보나 정당의 홍보 수단으로 많이 쓰여 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수막은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소각했을 땐 온실가스나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사람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서울 중구는 수거한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에 비치하고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줬다. 서울 송파구는 매년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폐현수막으로 물고기 모양의 자루를 만들어 바닷가와 공원의 쓰레기를 수거 및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남도의 시민단체, 대학, 어린이집 등 6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해양 쓰레기 수거용 자루 1090개를 제작해 47개 바닷가

등에서 환경정비 운동을 펼쳤다. 폐현수막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현 옷과 현수막 등 버려지는 폐섬유를 분해해 압축, 냉각, 가열하여 만든 '섬유패널'로 스타벅스 서울 대병원점 천장 마감재와 서울 남산도서관의 야외 벤치와 탁자 등을 제작하는 데도 활용됐다.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1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출되는 현수막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 든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의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5%, 22년 대통령 선거의 재활용률은 24.5%, 같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약 260만장의 현수막이 수거됐지만, 재활용률은 24.8%에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 1월 개정된 '육외광고물법'이 시행돼 내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교체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내걸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수거해야 하는 현수막은 여전히 많은 셈이다. 이제는 현수막에 대한 정책 전반을 고민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에너지 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된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이 좀 더 쉬운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등 천연물질을 사용한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막고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육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려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아끼고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인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jnilbo  
전남일보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lbo



##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